

急驚風に 對한 文獻的 考察

崔允禎* · 金璋顯**

I. 緒 論

急驚風은 小兒四大之病의 하나로 小兒의 病中에서 가장 危重한 것이라 하였는데^{6,21)} 中樞神經系統의 發達이 不完全한 嬰幼兒에 多發하며 여러가지 原因에 의해 神經系統의 機能이 一時的으로 紊亂해져 나타나는 一種의 症候群으로 그 特徵은 發熱과 搐搦, 意識不清等이다.^{7,8,15,25)}

急驚風에 關한 記錄은 驚癇^{20,23)}, 驚厥¹⁵⁾, 驚搐¹⁰⁾, 驚候³⁰⁾, 發搐¹⁴⁾의 範疇에 屬해 있는데, 宋代以前的 文獻에서는 그 名稱을 찾아볼 수 없고 一般的으로 癇症과 混淆하여 驚癇, 風癇, 食癇이라 命名했다.^{18,20,23)} 《太平聖惠方》에서 急驚風의 病名이 나오기 始作하며²⁶⁾, 《聖濟總錄》에서는 陽癇에 該當된다고 했다.³⁵⁾

北宋의 錢乙이 《小兒藥證直訣》에서 “急驚風은 본래 熱이 心에서 生하여 身熱하고 面赤引飲하며 口中氣熱하고 大小便이 黃赤하며 劇하면 搐이 된다. 대개 熱甚하면 風이 生하고 風屬肝하므로 이는 陽盛陰虛이다. 故로 利驚丸으로 主之하여 除其痰熱한다”라 하여 急驚風의 病因, 症狀, 治療原則을 提示하였으며³⁴⁾, 以後로 漸次 歷代醫家들에 의해 病因 症狀 治法이 多樣해졌다. 清代에 와서 驚風에 對한 認識을 달리하여 主된 論爭은 名稱과 治法에 對한 것이었는데, 《幼幼集成:

驚風關妄》에서는 傷寒病證을 誤搐, 雜病으로 因한것은 類搐, 痲絕脫症은 非搐으로 分類했으며, 治療에 있어서 辨證하지 않고 金石腦竅之藥의 濫用으로 인한 弊端을 警告하였다.^{12,25,38)}

近代에 이르러 《中醫兒科學》에서는 原因을 感染性과 非感染性으로 分類하여 西洋醫學의 接近을 試圖하였다.¹⁵⁾

이에 著者는 小兒疾患中 흔히 나타나는 危急한 症狀으로 認識되어지므로 各時代別 主要醫書를 通하여 急驚風의 病因病理와 症狀, 治法에 對해 調查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病因病理

(1) 病因

隋의 巢¹⁸⁾는 “血氣가 不和하여 內에 實熱이 있어 心神이 不定하여 發驚한다”고 했고, 宋代의 錢³⁴⁾은 “熱痰이 心胃에 客하고 閉聲非常하여 發하는데 만약 熱極하면 不閉聲及驚하여도 發한다”고 했다. 《幼幼新書》에서는 “小兒는 心神不定하고 胞絡多積痰涎하므로 邪熱을 生하는데 만약 熱盛하면 干於心神하고 兼하여 外風

* 東國大學校 韓方病院

** 東國大學校 韓醫學大學

邪가 客搏하여 發한다"고 했다.²⁸⁾ 金の 朱³⁶⁾는 熱痰, 明代的 樓¹⁰⁾는 木火土實에 起因한다고 했으며 대개 風邪와 熱邪를 主要原因으로 보고 있다.

《諸病源候論》“血氣不和 實熱在內 心神不定 所以驚”

《小兒藥證直訣》“若小兒熱痰客於心胃 因聞聲非常 則動而驚搐矣 若熱極 雖不聞聲及驚 亦自發搐”

《幼幼新書》“張淡論·小兒心神多不定 胎絡多積痰涎 遂生邪熱 若熱盛 干於心神 兼外傷風邪客搏 名曰急驚風病”

《丹溪心法附餘》“驚有二證 一者熱痰王急驚”

萬¹³⁾은 “外因으로 感冒風寒濕溫之氣를 失而不治하여 熱甚으로 發하고, 內因은 傷飲食發熱者를 失而不治하여 熱甚으로 發하고 不內外因으로 驚恐, 客悟, 中惡으로 得한다”고 했다. 清代의 沈²¹⁾은 “調理와 保護가 뜻을 잃고 낮에 바람을 맞고 밤에 잘때 옷을 두텁게 하거나 辛辣한 飲食을 多服하거나 복과 정소리를 듣거나 넘어져 울거나 사람, 물건, 번개 등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어 魂魄이 亂하여 發한다”고 했고, 喻¹²⁾는 傷寒瘧病이 驚風으로 傷寒에 起因한다고 했으며, 陳³⁰⁾은 傷寒은 誤搐, 傷暑, 瘧痢, 咳嗽, 丹毒, 瘡痘, 霍亂, 客悟, 中惡 등은 類搐을 일으키고, 특히 非搐의 範疇에서 大驚 卒恐하여 得한 것이 急驚風과 같다고 했으며, 丁³⁾은 外感 或 內傷으로, 《中醫兒科學》에서는 外感風寒하거나 溫邪에 感染되거나 乳食積滯하거나 갑자기 驚恐을 받음에 起因한다고 하여 外感, 內傷, 驚恐이 主要原因임을 알수 있다.¹⁵⁾

《幼科發揮》“有外因者 如感冒風寒濕溫之氣而發熱者 … 苟失而不治 熱甚發搐 … 有內因者 如傷飲食發熱者 苟失而不治 熱甚發搐 … 有不內外因者 驚恐客悟中惡得之”

《幼科釋謎》“調護失情 晝抱當風 夜臥厚衾 多食辛辣 偶觸鼓鉦 跌仆釀叫 人物雷霆 凡諸驚恐 魂魄亂經”

(2) 病理

錢³⁴⁾, 秦³⁹⁾등은 “본래 熱이 心에서 生하여 熱甚한즉 風이 生하고 風屬肝하므로 陽盛陰虛이다.”라고 하였고, 劉²⁹⁾는 “心火가 暴甚하여 金을 制하고 金衰하여 木을 平하지 못하므로, 肝風이 生하고 風火가 相搏하여 發한다”고 했다. 王²²⁾, 龔⁹⁾, 孫¹⁹⁾ 등은 “內에 實熱이 있는데 風邪가 侵入하여 心受熱하고 肝生風하여 風火交爭하여 氣血亂하고 痰涎壅盛하여 百脈이 凝滯하고 風氣가 蕃盛해서 發泄하지 못하므로 發한다.”고 했다. 徐¹⁶⁾는 “熱盛하면 生痰하고 痰盛하면 驚을 生하고 驚盛하면 風을 生하고 風盛하면 搐을 生한다.”고 하였으며, 李³²⁾는 風木이 旺하면 반드시 脾胃를 剋하여 發한다고 했고, 張³³⁾은 肝膽脾胃陰虛하고 血燥하여 風火가 相搏하여 發한다고 했다. 吳²⁷⁾는 “目觸異物하고 耳聞異聲하여 神散氣亂한 경우, 心肝火盛하여 風寒이 鬱閉되어 宣通하지 못한 경우, 痰盛熱極하여 內風이 動한 경우에 起因한다”고 하였다.

《小兒藥證直訣》“因聞大聲或大驚 … 本因熱生於心 … 蓋熱盛則風生 風屬肝 此陽盛陰虛也”

《河間三六書》“皆有 心火暴甚而制金 不能平木 故風火相搏”

《古今醫通》“熱盛生痰 痰盛生驚 驚盛生風 風盛發搐”

《醫宗金鑑》“急驚觸異心經熱 或由風鬱火生風 暴發痰盛或熱極, 註: 有因目觸異物 耳聞異聲 神散氣亂而生者, 有因心肝火盛 外爲風寒鬱閉 不得宣通而生者, 有因痰盛熱極而內動風者”

2. 症狀

(1) 概念의 比較

急驚風에 關係서는 驚癇, 搐等과 混用해서 使用되고 있으며 癇과 瘧과 類似하다.

a. 搐과 比較

《景岳全書》에서 “搐은 抽搐이다. 이는 驚風之屬으로 但 急暴하고 甚한 者는 驚風이라 하고 微弱하고 緩者는 發搐이라 하는데 發搐을 治療하지 않으면 漸次 驚風을 이룬다.”라 하여 搐은 驚風의 症狀으로 搐이 甚하면 驚風이 된다고 했다.³³⁾

b. 驚癇과 比較

《諸病源候論》에서는 “驚은 血氣不和하여 熱實在 內에 있어 心神이 不定한 까닭에 驚을 發하는데 甚한 者는 掣縮이 變하여 癇이 된다.”라 하여 驚과 癇은 發作의 甚한 정도를 表示하며³⁴⁾, 驚風과 癇病을 區別하지 않았다 《世醫得效方》에서는 驚候는 驚風으로 癇候는 癇病으로 分離했고³⁵⁾, 《醫學綱目》에서는 “驚癇은 發作시 땅바닥에 넘어지며 소리를 내고 깨어날때 거품을 吐한다.”라 하여 驚癇은 癇으로 보았다.¹⁰⁾

《景岳全書》“搐 抽搐也 是驚風之屬 但暴而甚者 謂之驚風 微而緩者 謂之發搐 發搐不治則漸成驚風”

《諸病源候論》“驚者 由血氣不和 熱實在內 心神不定 所以發驚 甚者 掣縮變成癇”

《醫學綱目》“驚癇發作時 仆地作聲 醒時吐沫”

c. 驚搐과 比較

《醫學綱目》에서 驚搐은 5種으로 急驚, 慢驚, 癇, 天疳, 瘧를 포함하는데 “몸에 熱이 나고 힘이 센 者는 急驚이고, 몸에 冷하고 힘이 작은 者는 慢驚이며, 땅바닥에 넘어지며 소리를 내고 깨어날때 거품을 吐하는 者는 癇이고, 머리와 눈을 위로 향해 보는 者는 天疳이며, 몸을 뒤로 젖혀 활과 같은 현상을 내는 者는

瘧다.”라 하였다.¹⁰⁾

d. 瘧과 比較

《寓意草》에서 “小兒가 쉽게 外感에 感觸되고 쉽게 熱을 生하여 傷寒이 獨多함을 모르고 世上에서 驚風이라 妄稱하는 것이 이것이다. …小兒는 柔瘧이 많다”라 하였고³²⁾, 《幼幼集成》에서는 傷寒病瘧을 誤搐으로 分類했으며³⁶⁾, 《溫病條辨》의 小兒瘧病에서는 驚과 瘧을 通用하고 있으며 《中醫兒科學》에서는 “驚風則瘧 瘧則驚風”이라하여 成人에서는 瘧病, 小兒에서는 驚風으로 稱하여 瘧과 類似한 것으로 나타나있다.²⁵⁾

《醫學綱目》“身熱力大者爲急驚 身冷力小者爲慢驚 仆地作聲醒時吐沫者爲癇 頭目仰視者爲天疳 角弓反張者爲瘧”

《寓意草》“不知小兒易于外感 易于生熱 傷寒爲獨多 世所妄稱爲驚風者則是也 …小兒柔瘧多”

(2) 症狀

《太平聖惠方》에는 “身體가 壯熱하고 痰涎壅滯하여 四肢拘攣하여 屈伸하기 어렵고 筋脈牽掣하여 項背가 強直되고 눈동자를 위로 치뜨고 입을 다물고 벌리지 못하는 것이다.”라 했고²⁶⁾, 《小兒藥證直訣》에서는 “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붉고 갈증으로 물을 찾고 口中的 氣가 熱하고 大小便이 黃赤 한 것으로 劇하면 搐이다.”라 하였고³⁴⁾, 《醫學入門》에는 “急驚八候를 모두 구비하고 더하여 얼굴과 입술이 붉고 몸전체가 壯熱하고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大便은 秘하고 小便은 赤하며 脈이 浮數洪緊하다.”라 하고³¹⁾, 《赤水玄珠》에서는 “抽搐이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症이 비록 急하나 有餘之症이다.”라 하여¹⁹⁾ 대개 發病이 急하고 實熱證을 나타낸다.

《太平聖惠方》“遍身壯熱 痰涎壅滯 四肢拘急 筋脈牽掣 項背強直 目睛上視 牙關緊急是也”

《小兒藥證直訣》“身熱 面赤引飲 口中氣熱 大小便黃赤 劇則搐也”

《醫學入門》“急驚八候俱全加以面赤脣紅渾身壯熱作渴 引飲大便秘小便赤脈浮數洪緊”

《赤水玄珠》“抽搐大作 症雖急 乃有餘之症也”

徐¹⁶⁾, 王²²⁾, 萬¹³⁾, 許⁵⁾ 등은 四證과 八候로 說明한 바 《古今醫通》에서 “무릇 小兒는 有熱하여 熱盛하면 痰을 生하고 痰盛하면 驚을 生하고 驚盛하면 搐을 發하고 搐盛하면 입을 다물고 別리지 못하면서 八候를 生하는데 搐, 搦, 掣, 顛, 反, 引, 竄, 視가 그것이다. 搐은 兩手를 伸縮하는 것이고, 搦은 十指를 開合하는 모양이며, 掣는 肩頭를 相撲하는 것이고, 顛은 手足과 頭身을 動搖하는 것이며, 反은 몸을 뒤로 제치고 頸項이 強直되며, 引은 손을 마치 활을 당기는 듯한 모양을 하는 것이며, 竄은 눈을 위로 치르고 성난 것처럼 直視하는 것이고, 視는 눈이 斜視가 되어 동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八候이다.”라 하여 急慢驚風에 同時에 나타내지만 病勢가 急暴하고 實證을 發하는 것이 急驚風이라 했다.^{16,25)}

《中醫兒科學》에서는 突然發作하고 意識을 喪失하며 眼球는 固定되거나 相轉하거나 斜視를 일으키고 面과 四肢에 強直性 抽動을 發하고 甚하면 頸項이 強直되고 腰背가 젖혀져서 활처럼 뒤로 만곡되며 大小便이 失禁하고 口角과 眼角이 抽動하며 一側, 兩側, 또는 全身抽動을 나타내는데, 發作의 回數나 持續時間은 個人的 差가 있으며 一回 或은 數回, 一分내지 數十分으로 一般的 痙攣症狀을 나타내고있다.¹⁵⁾

《古今醫通》“夫小兒有熱 熱盛生痰 痰盛生驚 驚盛發搐 搐盛則牙關緊急而八候生焉 搐 搦 掣 顛 反 引 竄 視是也 搐者兩手伸縮 搦者十指開合 掣者勢如相撲 顛者頭偏不正 反者身仰向後 引者臂若開弓 竄者目直似怒 視者

露睛不活 是爲八候”

(3) 豫後

《醫學入門》《東醫寶鑑》에서 “驚風이 세번 發하면 癇이 되고 이는 惡症이다”라 하였고^{26,31)}, 《幼科發揮》에서는 “急驚風이 變하여 癇을 이루는데 이는 心病이며 心主驚하므로 驚이 오래되면 癇이 된다”고 했다.¹³⁾

《景岳全書》에서는 “祛風化痰之藥을 通用시 脾益虛하고 血益燥 하고 邪氣가 綿延하므로 반드시 慢驚이 된다”고 했고³³⁾, 《嬰童百問》에서도 “急驚風治療시 寒涼藥 또는 水銀 輕粉 巴豆 芒硝等을 通用時 元氣를 傷하여 慢驚風으로 發展한다”고 하였다.¹¹⁾

《幼科發揮》에는 搐後成癲癇, 驚風後瘡不能言이라 하였고¹³⁾, 《丁茶山小兒科秘方》에는 驚風退去後 心神虛弱, 驚風退去後 卒然聲啞, 驚風退去後 腫子不正이라 고 後遺症을 說明하고 있다.³⁾

《醫學入門》“驚風三發則爲癇 乃惡症也”

《幼科發揮》“急驚風變成癇者 此心病也 心主驚 驚久成癇”

《景岳全書》“若不顧眞陰通用祛風化痰之藥則脾益虛血 益燥邪氣綿延必成慢驚”

《嬰童百問》“蓋急驚須當下 切不可通用寒涼及銀粉巴硝 鑿僅去疾即止 或不當用而用 或當用而過焉 往往由此而成慢驚矣”

《醫宗金鑑》《東醫寶鑑》에서 “눈동자가 번득이며 움직이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兩足이 헤쳐져 뛰고, 腹部가 搐動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찾으며 神昏하고 氣促하여 藥을 삼키지 못하고, 내뱉으며 通關시켜도 재게기가 나오지 않으며, 心中이 熱痛하고 홀연히 크게 우는 者는 不治라”하고^{6,27)}, 《幼科折衷》에는 “크게 울기를 三兩하는 者는 心絶로 難治이고, 四肢가 모두

軟者是 不治 이고, 口中에서 出血하는 者는 難治이고
大小便이 遺者는 難治이고, 關部位의 黑紋이 直者는
死라" 하여 急驚風 不治症을 서술하고 있다.³⁹⁾

《聖宗金鑑》 "眼睛飄轉 口中出血 兩足攛躁 頭腹搖動
摸體尋衣 神昏氣促 噴藥不下 通關不噎
痛 忽大叫者 不治"

《幼科折衷》 "大叫三兩者是心絕難治 四肢俱軟者不治
口中出血難治 尿管遺者難治 關黑紋直者
死"

3. 治法

《聖濟總錄》에는 化涎鎮心神的 治法을 썼고, 錢³⁴⁾은
"除其痰熱하고 巴豆및 溫藥으로 大下하지말라"고 했
고, 李³²⁾는 先實其土 後瀉其木하라 했고, 萬¹³⁾, 朱³⁶⁾ 등
은 涼瀉, 危³⁰⁾, 秦³⁹⁾ 등은 通關, 樓¹⁰⁾, 龔⁹⁾, 孫¹⁹⁾ 등은
"먼저 通關後에 截風定搐하고 만약 痰熱이 오히려 作
하면 이에 微下하고 痰熱이 이미 泄했으면 急히 調養
胃氣하고 搐이 定하고 痰熱이 조금 退하면 調補脾氣
하라" 했다. 魯¹¹⁾는 通關後에 疏風化痰退熱藥을 使用
하라 하고, 王²²⁾은 "搐을 治하려면 먼저 截風하고, 風
을 治하려면 먼저 利驚하고, 驚을 治하려면 먼저 豁
痰하고, 痰을 治하려면 먼저 解熱해야 된다고 했다.

《小兒藥證直訣》 "以除其痰熱 不可與巴豆及溫藥而大下
之"

《嬰童百問》 "治法大要 用藥有序 通關以後 次與截風定
搐 若痰熱尚作 乃微下之 痰熱既泄 又須
急與和胃定心之劑"

"此證亦用搐鼻通關打噴涕 牙關開後 用疏風
化痰退熱藥"

《醫學綱目》 "當截風定搐 若痰熱尚作 乃微下之 痰熱既
泄 急宜調養胃氣 搐定而痰熱少退 卽調補
脾氣"

《幼科準繩》 "治搐先於截風 治風先於利驚 治驚先於豁
痰 治痰先於解熱"

張³³⁾은 "先治其標하고 後治其本하라 했으며, 治標하
되 단, 痰火稍退하면 마땅히 氣血을 調補하라" 했다. 閻
은 "그 搐勢가 漸次 減少하면 鎮心治熱藥을 一二回 服
하여 驚勢가 이미 定하면 잠시동안 藥으로 下痰하고
利下痰熱하고 心神이 安寧하면 낫는다" 하였고²⁴⁾, 薛은
滋肝血養脾氣^{22,33)}, 陳은 大驚으로 인한 것은 마땅히
收復神氣하라 하고 晞 虛 痢 痘 霍亂 丹瘡은 비록 한
가지가 아니고 病으로 말미암아 搐이 된 것으로 그 源
을 찾아 그 病을 치료하면 搐이 스스로 그친다고 하였
고³⁸⁾, 《中醫兒科學》에서는 風寒型은 疏風解肌 開竅鎮
壓, 溫熱型은 疏表清熱 開竅鎮壓, 食厥型은 消食止壓,
驚恐型은 安神鎮驚의 治法이 使用되었다.¹⁵⁾

《景岳全書》 "治標之法 但得痰火稍退卽當調補血氣"

《幼科類萃》 "閻氏小兒方論:急驚 …當其搐勢漸減時 與
鎮心治熱藥一二服 候驚勢已定 須與以藥
下其痰勢 利下痰熱 心神安寧卽愈"

《幼幼集成》 "大驚致困者 本乎心膽受傷 神氣離之病 當
以收復神氣爲主" "晞 虛 痢 痘 霍亂 丹
瘡 病雖不一 而搐由病致 第尋其源 治其
病而搐自止"

III. 考 察

急驚風은 1세에서 4세의 小兒에 好發하며 年齡이 낮
을수록 患病率이 높으며 一個의 病이 아니라 證으로
여러 原因으로 인해 일어나며 臨床上 抽搐을 發하는
것중에서 陽 熱 實에 속하는 것을 모두 包含한다.^{2,25)}

急驚風에 對한 記錄은 驚癇^{20,23)}, 驚厥¹⁵⁾, 驚搐¹⁰⁾,
驚候³⁰⁾, 發搐¹⁴⁾의 範疇에 屬해 있으며 「癇」과 「瘧」과

類似하다. 《素問·奇病論篇》에서는 “母의 腹中에 있을 때 母體가 크게 놀라 氣上하여 不下하고 正氣가 함께居하므로 子로 하여금 癩疾을 發하게 한다.”라 하여 癩疾과 區別되지 않았고⁴⁾, 隋代의 《諸病源候論》에서는 驚과 癩이 發作的 정도로 表示되었고¹⁸⁾, 唐代의 《千金要方》《外臺秘要》에는 驚癩, 風癩, 食癩으로 命名했다.^{20,23)} 宋代의 《太平聖惠方》에서 急驚風의 名稱이 나오기 始作하였고, 《聖濟總錄》에는 “身體가 壯熱하고 痰涎壅滯하여 四肢가 攣고 屈伸이 어렵고 筋脈이 牽掣하여 項背가 強直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 發病이 急한 故로 急驚風이라 名한다.

古人이 陽癩이라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로 陽癩과 同一한 症으로 보았다.^{26,28,35)}

北宋의 《小兒藥證直訣》에서 病因病理 및 證治가 提示되어 癩과 區別되고³⁴⁾, 《小兒衛生總微論方》에서는 “小兒發搐은 急慢驚으로 古書에는 없으며, 오직 陰癩 陽癩이라 했는데 所謂 急慢驚은 後世에 名한 것이다. 陽動而速한 故로 陽搐을 急驚이라 한다.”고 하여 急驚風은 陽搐이며 陽癩과 같은 것이라 했다.¹⁴⁾

明代의 《醫學綱目》에서 急驚風은 身熱하고 力大한 것이며 癩은 發作시 넘어서며 소리를 지르고 깨어날 때 거품을 토하는 것으로 概念의 差를 明確히 했다.¹⁰⁾ 《金匱要略》에는 “病이 身熱하고 足寒하며 頸項이 強直되고 惡寒시에는 頭部에 熱이 나고 面目이 붉고 들린 입을 벌리지 못하고 背部가 뒤로 젖혀지는 것을 瘈病이라 한다”하여 그 症狀이 急驚風과 類似하며¹⁷⁾, 清代의 《幼幼集成》에서는 驚風을 誤搐, 類搐, 非搐으로 나누어 傷寒病證을 誤搐으로 보았다.³⁸⁾ 搐症에 關係서는 搐에는 陰陽이 있고 其中 陽搐을 急驚風이라¹⁴⁾ 했는데 一般의 張³³⁾이 “搐은 抽掣이고 이는 驚風之屬이다”한 바와 같이 急驚風의 症狀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하겠다.

急驚風의 原因은 大개 驚, 風, 痰, 熱의 相互作用으로 發하는데 風邪와 熱邪가 主要한 것으로 病理的 機

轉을 살펴보면 《素問·至真要大論》에서 “諸風掉眩皆屬于肝, 諸熱瞤瘛 皆屬于火”라 했고⁴⁾, 《河間三六書》에는 “대개 小兒病은 純陽으로 熱이 많고 冷은 적다”고 하여²⁹⁾ 小兒之體는 「純陽」으로 邪氣를 받아 極하면 熱로 化하기 쉽고 臟腑가 軟弱하고 形氣가 未充하므로 高熱을 견디기 어려운 탓으로 熱極生風하여 風火가 相煽 하고 肝風을 動하게 하여 發生하게 된다. 風火와 關聯된 臟器는 肝心으로 劉²⁹⁾는 心火가 暴甚하여 金을 制하고 金衰하여 木을 平하지 못하므로 風火가 相搏하여 發한다고 하고, 王²²⁾, 龔⁹⁾ 등은 內에 實熱이 있는데 風邪가 侵入하여 心受熱하고 肝生風하여 風火交爭하고 痰涎壅滯하여 發泄하지 못하여 發한다고 했다. 錢³⁴⁾은 內有痰熱하고 外受驚恐하여 發한다고 했고, 徐¹⁶⁾는 熱盛하면 生痰하고 痰盛하면 生驚하고 驚盛하면 生風하고 風盛하면 發搐한다고는 機轉을 說明하였고, 그의 李³²⁾는 風木旺으로 脾胃를 剋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樓¹⁰⁾는 木火土虛에 起因한다고 했다.

急驚風의 素因으로는 萬¹³⁾은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나누어 感冒風寒濕溫之氣, 傷飲食, 驚恐客忤中惡이라 했고, 丁³⁾은 外感과 內傷, 錢³⁴⁾, 許⁶⁾, 魯¹¹⁾ 등은 或異物을 보거나 큰 소리를 듣고 驚恐하여 發한다고 하여 外感, 內傷, 驚恐으로 大分할 수 있다. 小兒는 腠理不密하고 衛外不固하여 易受外邪하며 純陽之體로 外感風寒하여 鬱閉되면 宣泄하지 못해 化熱하므로 風熱相搏하여 發하고, 外感溫熱之邪가 侵入時는 易化熱하여 肝風內動하여 發한다. 또, 小兒는 《幼科發揮》에서 「肝常有餘 脾常不足」하다¹³⁾ 하여 乳食積滯하면 脾失健運하여 脾胃停痰하고 肝失條達하며 熱甚하여 肝風內動하므로 抽搐等이 發하고, 小兒는 神氣怯弱하여 易受驚하는데 心主驚主神志하므로 驚則傷神 驚則氣亂하고 恐傷志하므로 一時的 驚搐을 發하게 된다.¹⁵⁾

急驚風의 症狀은 주로 「驚風痰熱」의 四證과 「搐掣掣顛反引竄視」의 八候로 나타내어지는데 發病이 暴急하고 發熱과 搐掣 및 陽盛陰虛의 症狀으로 《萬病回春

〉에서는 “急驚屬肝 風邪 痰熱 有餘之症也 陽症也”라 했다.⁹⁾ 《活幼心書》에서 “面紅卒中渾身熱唇黑牙關氣如絕目瞶搐搦喉中痰”이라 하고³⁷⁾, 《景岳全書》에서는 “急驚之候 壯熱痰壅 竄視反張 搐搦顫動 牙關緊急 口中氣熱 頰赤唇紅 飲冷便結 脈浮數 此肝邪風熱陽盛陰虛證也”라 하고³³⁾, 《醫宗金鑑》에서는 “壯熱 煩急 痰壅氣促 面唇紅 牙關緊 二便秘澀 脈洪數” 하여²⁷⁾ 이를 살펴보면 卒中 氣如絶 煩急 등은 驚證이고, 牙關 目瞶 搐搦 竄視反張 顫動 牙關緊急는 風證, 面紅 壯熱 口中氣熱 唇紅 飲冷 便結 二便秘澀 脈浮數는 熱證, 喉中痰壅氣促는 痰證으로 分類된다.

西洋醫學의으로 小兒는 感情 또는 身體의 變化에 대해 쉽게 痙攣을 일으키며 中樞神經系와 모든 全身의 變化를 反映하는 것이 痙攣이다.⁵⁾ 發熱을 陪伴하는 痙攣은 熱性痙攣, 細菌性病疾, 流行性腦脊髓膜炎, 腦炎, 結核性腦膜炎等에 發하며 急驚風과 關係가 깊다.¹⁵⁾

急驚風의 豫後로는 痙症이 되는 경우, 慢驚風으로 轉變하는 경우, 後遺症을 남기는 경우가 있으며, 不治인 경우도 있어 急驚風의 危重함을 示唆하고 있다. 李³¹⁾는 急驚風이 세번 發하면 痙이 된다고 하였고, 萬¹³⁾은 急驚風이 變하여 痙을 이룬다 했는데 西洋醫學의 熱性痙攣이 15分以上 持續되거나 하루에 2回以上 反復 發作時 痙疾이 될 可能性이 있다고 한 것과 類似點이 있다.⁵⁾ 魯¹¹⁾는 急驚風治療時 寒涼藥 또는 銀粉巴硝等을 過用時 元氣를 傷하여 慢驚風이 된다 했고, 張³³⁾도 祛風化痰藥을 過用하면 脾益虛하고 血益燥하여 慢驚風을 이룬다 하였는데, 西洋醫學의으로 熱性痙攣이 家族歴이 있거나 以前의 神經學的 또는 發達異常時와 15分以上 또는 焦點性 痙攣時에 無熱性 痙攣이 된다하여 原因의 差는 있으나 慢驚風은 無熱性 痙攣과 類似하다. 後遺症으로는 萬¹³⁾은 癱瘓, 不語, 丁³⁾은 心神虛弱, 啞, 腫子不正이 있다고 한 바 西洋醫學의으로 보면 腦膜炎時 腦水腫, 聽覺障礙, 知能薄弱, 反復性 痙攣, 視力障礙 등의 後遺症이 있으며, 腦炎時는 四肢麻痺 言語障礙

情緒障礙 知能障礙 運動過多 痙疾發作 知覺異常 睡眠障礙 등으로 어느정도 一致한다고 보여진다.¹⁾

急驚風의 治法에 있어서는 《景岳全書》³³⁾에서 「先治其標 後治其本」과 같이 錢²⁴⁾은 除其痰熱, 下法을 썼고, 危³⁰⁾, 秦²⁹⁾, 龔⁹⁾ 등은 通關, 朱³⁷⁾는 涼瀉, 降火下痰 養血, 萬¹³⁾은 涼瀉 등의 標治를 우선적으로 活用하였고 그후 張³³⁾은 痰火가 조금 退하면 氣血을 補하라 하였고, 樓¹⁰⁾, 龔⁹⁾ 등은 通關後 截風定搐하고 痰熱이 泄하면 調養胃氣하고 搐이 定하고 痰熱이 조금 退한 경우는 調補脾氣하라 했다. 또, 萬¹³⁾은 輕粉, 巴豆之類는 元氣를 傷하고 脾胃를 損傷하여 잘못하면 小兒를 죽이게 되므로 합부로 쓰지 말라고 했고 魯¹¹⁾는 銀粉巴硝等은 重劑로 不得已하여 使用時 去疾即止하라 하였고, 吳¹⁸⁾는 驚風後調理法을 活用하였는데, 이는 慢驚風으로의 轉變을 前提로 한 것이다. 또, 喻¹²⁾는 “金石藥으로 鎮墜하면 外邪가 臟腑로 깊이 들어가서 千中の 千이 죽는데 그 사이 體墜하고 證이 輕하여 나온 자가 있는데 또 의지하여 奇功이라 再造하여 모름지기 각자가 端門을 지키는데 이르러 비록 날로 數兒를 죽이면서 스스로 그 죄를 모르고 있다.”라 하고, 陳³⁸⁾은 “臨治者는 마땅히 各證의 病源이 有別함을 알아서 治療하는데 攻補가 스스로 다르니 다시 急驚慢驚慢脾混同立論으로 써 截風定搐의 死法을 統治해서는 안된다”라고 以前의 治法을 強力히 비난하기도 했다. 王²²⁾은 熱痰驚風搐順의 病理機轉에 따라 搐을 治할때는 먼저 截風하고 治風할때는 利驚하고 治驚할때는 豁痰하고 治痰할때는 解熱의 方法을 使用했고, 薛은 滋肝血養脾氣, 李³³⁾는 先實其土 後瀉其木의 治法을 活用했다. 《中醫兒科學》¹⁵⁾에서는 대체로 鎮墜을 兼하여 風寒型은 疏風解肌, 食滯型은 消食, 溫熱型은 疏風清熱, 驚恐型은 安神鎮驚의 原因에 따른 治法을 使用하였다. 대체로 「急則治標」의 標治로서 應急治療를 하고난 후 原因에 따른 本治를 活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急驚風은 小兒의 陽有餘

陰不足한 生理의 特性과 有關하여 흔히 나타나는데 心主驚하고 肝主風하므로 病的 所在部位는 주로 心肝이며 外感, 內傷, 驚恐 등의 素因으로 熱, 痰, 驚, 風의 相互作用에 依해 급작스럽게 發熱과 抽搐을 爲主로하는 陽盛陰虛한 症狀이 나타나며, 發作時 標治後 原因에 따른 治法을 活用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結 論

急驚風の 病因病理, 症狀, 治法에 對한 文獻의 考察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急驚風은 癇과 混淆되어 왔는데 宋代의 太平聖惠方에 그 名稱이 처음 收錄되었으며 錢乙이 證治를 提示하여 原則적으로 癇과 區別하였고 清代에서 名稱上의 論難은 있었으나 驚風の 辨證에 크게 寄與했으며 現代에서는 一般적으로 急性的으로 發熱을 兼하는 小兒의 痙攣症狀를 指稱한다.
2. 急驚風の 原因은 內傷飲食, 外感風寒溫邪, 驚恐 등의 영향으로 熱, 痰, 驚, 風의 作用으로 發하며 주로 風火相搏 熱甚而生風에 起因한다.
3. 急驚風の 症狀은 陽, 熱, 實에 屬하며, 發病이 暴急하고 臨床의으로는 身體壯熱 神志煩急 大便秘結 小便難澀 痰壅氣促 牙關緊急 搐搦顛掣 竄視反張 脈洪數한 陽盛陰虛의 症狀이 나타나고, 癇症및 慢驚風으로 轉變할 수 있고, 不語, 癡瘖, 心神虛弱 등의 後遺症이 나타나기도한다.
4. 急驚風の 治法은 降火下痰, 通關, 涼瀉, 截風定搐, 鎮壓, 鎮心神, 滋肝養血 調養脾胃 등이 使用되었으며, 使用되는 藥物이 주로 性이 寒涼한 金石重墜藥들이므로 適用을 禁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1) 醫學教育研修院 編 : 家庭醫學,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pp.451-462
- 2)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85, pp.177-190, 460-465
- 3) 丁茶山 : 小兒科秘方, 서울, 杏林出版社, 1969, pp.18-21
- 4)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77 pp.303-304
- 5) 洪彰義 : 小兒科學,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7, pp.447-456
- 6)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pp.637-671
- 7) 朴恩貞 : 急驚風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洋醫學 16卷 1號, 東洋醫學研究院, 1990
- 8) 李俊茂, 李珩九 : 驚風の 病因病理 및 症狀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醫學學會誌, Vol.4, No.1, June, 1983
- 9) 龔廷賢 : 萬病回春, 香港, 人民衛生出版社, 1970, pp.380-383
- 10) 樓 英 : 醫學綱目, 臺南, 北一出版社, 1973, pp.20-44
- 11) 魯伯嗣 : 嬰童百問, 上海, 上海書店, 1985, 15問
- 12) 萬友生, 楊扶國校注 : 喻嘉言醫學三書中 寓意草,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84, pp.721-727
- 13) 萬 全 : 幼科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17-38
- 14) 不著撰者 : 小兒衛生總微論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p.92-93
- 15) 上海中醫學院 : 中醫兒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140-149

- 16) 徐春甫：古今醫統秘方大全，서울，金剛出版社，pp.5721-5758
- 17) 成都中醫學院：金匱要略選讀，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0,P.12
- 18) 巢元方：諸病源候論，臺北，集文書局，1976，pp.454-456
- 19) 孫一奎：赤水玄珠全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6，pp.941-948
- 20) 孫思邈：備急千金要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77-82
- 21) 沈金鰲：幼科釋謎，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59，pp.19-23
- 22) 王肯堂：證治準繩 五 幼科，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59，pp.75-89
- 23) 王 焘：外臺秘要 下冊，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中華民國68年，pp.961-986
- 24) 王 巒：幼科類萃，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4，pp.87-123
- 25) 王伯岳·江育仁：中醫兒科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pp.117-122
- 26) 王懷隱：太平聖惠方，醫方類聚中，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549-559
- 27) 吳 謙：醫宗金監，서울，大星文化社，1991，pp.565-569
- 28) 劉 昉：幼幼新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pp.271-287
- 29) 劉河間：劉河間三六書，서울，成輔社，1976，pp.234-237
- 30) 危亦林：世醫得效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pp.375-376
- 31) 李 梈：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4，pp.105-107
- 32) 李東垣：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pp.241-244
- 33) 張介賓：景岳全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6，pp.704-705
- 34) 錢 乙：小兒藥證直訣，江蘇，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P.10
- 35) 政和·曹孝忠等：聖濟總錄，臺北新文豐出版社，1978，pp.1338-1335
- 36)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1982，pp.773-774
- 37) 曾世榮：活幼心書，北京，中國書店，1985，pp.9-11
- 38) 陳復正：幼幼集成，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62，pp.55-65
- 39) 秦昌遇：幼科折衷，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0，pp.5-11